

지역 소식통

정읍시, 현충일 행사 축소

정읍시가 제65주년 현충일 기념행사를 축소해 추진한다.

시는 당초 순국선열과 전몰호국 용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예년보다 축소해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시민이 동참한 결과 정읍은 현재까지 확진자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00여 명을 넘어 확산 추세에 있어 지역 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0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현충일 추념 행사를 간소하게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는 행사외식을 생략하고 국가에 대한 경례와 전국사 이현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그리고 헌화 및 분향을 한 후 행사를 마칠 계획이다. 참석대상 또한 유족 대표와 기관단체장, 보훈 단체장 등 약 40여 명으로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관내 등산로 26개소 진드기 기피제 보관함 정비

고창군 보건소가 관내 주요 등산로 선운산, 방장산, 진불길 등 26개소에 설치된 진드기 기피제 보관함 일제 정비에 나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군 보건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 2만 4000개, 팔토시 3000병 등을 각 읍·면·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배부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24일 강원도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SFTS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하나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기피제 뿌리기, 돗자리 사용 외출 후 즉시 옷 세탁 및 목욕하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고창=김영식기자

미래솔라텍 본격 가동

정읍 첨단과학산단에 입주, 태양광 발전시설물 제조 업체 지난 16일 준공식... 수주량 증가로 올 매출액 100억 목표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태양광 발전시설물 전문제조 업체인 (주)미래솔라텍(대표 김계안)이 지난 16일 준공식을 가지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 당선자,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정성철 이상길 시의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내빈축사, 테이프커팅, 공장시찰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주)미래솔라텍과 부지 4,058㎡(1227평)에 10억 원 투자와 10명의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주)미래솔라텍은 2018년 설립, 지난해 11억의 매출을 올리고 올하는 공장의

확장 이전과 수주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100억을 목표로 하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건설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방세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에서 탄탄하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 성장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입주기업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귀농 청년 농부에 트랙터 무상 지원

동양물산기업 전국 공모

도내 대상자에 김민진씨

정읍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농부에 트랙터를 무상지원하는 '귀농 청년 농부 트랙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농부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정읍시에서 추천한 청년 농부 김민진(28, 여)씨가 전라북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동양물산기업(주) 익산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증행사에는 소성면 김민진 씨 부부와 정읍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트랙터를 기증받는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5일 동양물산기업(주) 익산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증행사에는 소성면 김민진 씨 부부와 정읍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트랙터를 기증받는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김민진 씨 부부는 유진섭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국에서 많은 젊은 귀농인들이 신청한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기쁨을 감출 수 없다"며 "정읍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정읍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기증받은 트랙터를 활용해 직접 재배 생산한 농산물을 이웃들에게 나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 농촌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읍시 농촌 활력에 적극 앞장서는 청년 농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스무살 청년 응원"

제48회 성년의 날 축하카드

고창군이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난 15일 고창군은 '제48회 성년의 날(18일)'을 맞아 올해 만19세로 성년이 된 2001년생 543명에게 축하카드를 보냈다.

고창군은 "드높은 이상과 꿈을 펼쳐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우리 지역

과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동량으로 성장하기 바란다"는 유기상 군수의 축하와 격려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제작하여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배달했다.

고창군은 청소년들이 성년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는 한편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도 되돌아보도록 해마다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축하 카드를 보내 격려했고 있다.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1973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 만18세가 개정되면서 만20세에서 만19세로 연령이 낮춰졌다.

우리나라는 1974년과 1975년에 걸쳐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에 맞춰 5월6일로 바꾸었고,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오는 20일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리기 등 16종 100대의 농기계를 1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영농현장까지 운송해주는 운송서비스를 상시 운영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 운송서비스 시행

원거리 농업인 · 농기계 이용 취약계층 이용률 향상 기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오는 20일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리기 등 16종 100대의 농기계를 1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영농현장까지 운송해주는 운송서비스를 상시 운영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운송서비스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2~3일 전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해당 농기가 원하는 지역까지 운송해주는 방식이다.

운송요금은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를 통해 편도 2만원 왕복 4만 원으로 농업인 실정에 맞게 추진한다.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본소(상서면)와 남부권 동부권 등 3개소

로 201종 927대의 농기계를 보유·운영 중이며 매년 7000여 건에 달하는 임대실적으로 농가들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이번 운송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임대사업소가 없는 원거리 농업인들과 농기계 이용이 불편했던 취약계층 농업인 등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운송서비스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농기계 운반시 발생하는 사고위험을 줄이고 특히 고령 및 여성농업인 등 농기계 이용 취약계층의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농업인들의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근호 부안부군수, 곰소염전 복합센터 현장행정

한근호 부안군 부군수는 최근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센터 조성사업 대상자에 대한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2020년 국토교통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부안군이 선정된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센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준비과정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은 공모사업 평가당시 평가심사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워터대사지 인접 범섬공원 전망대 조성계획과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영의 과장활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인 곰소염전 부지 조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오는 2021년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센터가 조성되면 부안을 둘러싸

고 있는 국도 30호선 해안도로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로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개회의 기틀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근호 부군수는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센터 조성사업이 곰소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군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푸르밀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 교수 연구팀 특이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